

의원들, '북한산 현장' 걸잡기 점검

“절에 보상 많이 해주면” ... 불교 비하발언도

조계종이 북한산 관동도로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형식적인 현장 점검에 불교비하 발언까지 서슴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측은 9월 30일 일간지 및 교계인론사 환경 담당기자들과 함께 공사현장이 내려다 보이는 경기도 양주군 소재 천주교공원묘지를 방문하고 회룡사 스님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총무원의 이같은 움직임은 그간 관동도로에 대한 국민의 정확한 인식과 사실 확인이 부족했다는 판단이래, 북한산 관동도로 개통이 파생시킬 환경훼손 및 생태계파괴, 대기오염 유발 등의 문제들을 정확히 알려 북한산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이 자리에서 북한산 관동도로 노선제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한 위성동 박사(한국도로기술 대표이사)는 “현재 공사 진행 중인 북한산 노선은 이미 10년 전의 조사결과에 따라 1998년 최종 실시돼 현재 북한산 주변 환경과 생태계의 변화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실시설계노선은 의정부 IC와 터널의 간격이 적정치 기준인 2km에 미치지 못해 북한산 관동도로의 본래 목

적인 의정부, 포천, 동두천 등지의 교통량을 흡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기오염의 분지로 각종 환경, 생태계 파괴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진행된 회룡사 스님들과의 간담회에서 주지 성경스님은 “국립공원과 전통사찰이 있는 북한산을 뚫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북한산과 생사를 함께 하기로 한 회룡사 비구니스님 7명의 결의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부활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날인 10월 1일에는 국회의원들의 서울 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공사 현장점검이 있었다. 그러나 이날 현장 점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16명 중 절반도 안 되는 7명만이 참석했다. 정작 현장 방문조차 하지 않은 채 20분 만에 끝났다.

심지어 박혁규 국회의원(한나라당, 경기도 광주시)은 “저기 절에 보상을 많이 해주면 되잖아요. 간단한 것 아니에요. 돈 많이 주면 안 나가겠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 의원의 발언을 비난했다.

공사장 방문하지 않은채 20분만에 끝내 회룡사 스님들 “북한산과 생사 함께 하겠다”

김은경 기자 ipck@buddhapia.com

공론조사 의견조율 활발

불교계·관련단체들 수용여부 토론 문광장관, 법전스님 예방 협조 요청

북한산 관동도로 공론조사 수용 여부를 놓고 불교계, 시민·환경 단체, 정부가 견결음을 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 수경스님과 환경운동연합 최열씨, 참여연대, 녹색연합 등 시민·환경단체 실무자들은 10월 3일 저녁 유인태 정무수석 등 5명의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 북한산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에 앞서 이날 낮에는 수경스님과 최열씨 등이 총리공관에서 고 건 총리와 만나 서로의 입장을 교환했다.

1일에는 조계종 공대위와 불교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노원·도봉시민연대 등 6개 시민·사회·환경 단체들이 연석회의를 열고 토론을 벌였다.

이창동 문광부 장관은 9월28일 해인사에서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을 예방하고 공론조사 수용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전스님은 관동도로 백지화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명우 기자



10월 2일 부산 롯데호텔 대강당에서 열린 맑고 향기롭게 10주년 기념 법정스님 전국 강연회 모습.

“하나로 만족하는 삶 사세요 욕심내면 그 하나도 잃게 돼”

법정 스님, ‘맑고향기롭게’ 10돌 기념 순회 강연

“그동안 잘 사셨습니까?”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갈수록 불안해져만 가는 우울한 사회를 떠올렸을까. 법정스님은 부산 롯데호텔 대강당을 입주의 여지없이 팍 채운 8천여 대중들을 향해 이런 질문을 던지며 부산 강연을 시작했다. 대중들이 “예!”라고 큰 소리로 대답하자 스님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하며 강연을 이어나갔다.

맑고 향기롭게 창립 10주년을 맞아 광주, 창원, 부산, 대구를 순회하며 강연회를 연 스님은 9월 29일 광주 강연을 시작으로 10월 1일 창원, 2일

부산, 4일에는 대구 강연을 잇따라 가졌다. 이번 전국 순회강연을 맑고 향기롭게 지방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국 2만여 대중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맑고 향기로운 삶과 나눔”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부산 강연에서 법정 스님은 “우리의 삶은 슬픈 연관을 맺은 많은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인간뿐 아니라 생물들, 자연 등과 어우러진 우리의 삶에서 전체를 보는 안목을 키워 함께 사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 스님은 강연 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과 수행자들의 환경운동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심각해지고 있는 자살문제에 대해

서는 “사회적 불안정으로 자살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인, 종교인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자살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자살의 습관을 익힐 뿐이다. 마음의 힘과 지혜를 길러 어려움을 뛰어넘도록 종교인들이 계도해야 한다”며 종교인의 역할을 강조했다.

법정 스님은 앞서 9월 27일 광주에서 열린 강연에서는 북한산 관동도로 건설 반대 입장도 표명했다.

스님은 “경제논리를 내세운 기존 노선 강행은 자연과 인간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할 수 밖에 없다”며 “경제는 지금이 아니면 다음에도 기회가 있지만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회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정 스님은 쫓기듯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위한 메시지 전달도 잊지 않았다. 스님은 “밥도 뜯어 드는 과정이 필요하고, 하나의 씨앗이 땅에 묻혀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림과 그리움이 동반되는 사계절의 순환이 필요하다”며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야 할 때가 있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1일 창원시 KBS 창원홀에서 열린 강연에서 서양식 생활방식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스님은 “지금 세계는 모든 것이 정상을 이탈해 내리막길로 치달고 있다”며 “하나로 만족하라. 그렇지 않고 욕심만 내면 가지고 있는 하나도 잃게 된다.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설교했다.

천미희 · 김철우 기자

목표 곧장 가기보다 돌아가는 여유 필요

생물·자연과 어우러져 사는 지혜 배워야

“불교문화재 237점 돌려주겠다”

중앙박물관, 국감서 조계종 요청 수용 뜻 밝혀

소유권 논란 4점은 법 결정 따라 처리

조계종이 국·공립박물관에 소장된 사찰 기탁문화재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이 조계종이 요청한 241점 가운데 237점에 대해서는 반환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신원사 석탑 발견유물 등 소유권 논란이 있는 4점과 수종사 출토 유물 등의 불교 문화재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와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반환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한나라당 고홍길 의원은, 9월30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립중앙박물관 국정감사에서 “2003년 1월 현재 총27개 사찰의 98

건 2,121점의 불교문화재가 타 기관에 대여돼 있다”며 “조계종이 우선 반환을 요청한 241점의 불교문화재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원래의 소유자인 종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중앙박물관측은 답변에서 “조계종에서 반환 요청한 241점 중 소유권이 확실한 237점은 반환에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유권 논란이 있는 △신원사 오층석탑 기단부 발견 유물 2점 △백률사의 금동약사여래입상(국보28호)과 석조 이차돈 순교비 등 2점 등 4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4점 모두 국유문화재로 등록돼 관리

국립중앙박물관에는 불교 기탁문화재로, 문화재청에는 국유문화재로 소유자가 상이하게 기록돼 있는 수종사 부도 출토유물(보물 259호)과 관련해서는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며,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심재권 의원은 “조계종과의 소유권 분쟁이 우려되는데도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은 모두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문화재 소유권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전통한정식 복원

정갈하고 담백한 전통한식으로 스님과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예약전화 : 02)2269-7155 (주차정원비)
5호선 동대문운동장역 6번출구 (인쇄정보센터빌딩 지하) 금강심 양장 배려

대한불교 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지사 수성구 포교원

직지불교대학 · 황룡사

남북통일 발원 및 수계민 돕기

약사여래 대불 점안대법회 자비 산사 음악회

- 법 어: 혜창 큰스님 (직지사 전주지)
- 격려사: 자광 큰스님 (직지사 주지)
- 산사음악회 특별출연: 불자가수 박정식 (곡목: 천년바위 외)

일시 점 안 식(1부) 2003년 10월 11일(토) 오후 4시
산사음악회(2부) 2003년 10월 11일(토) 오후 6시 30분

장소 황룡사(지산삼거리)
장소 053)784-8620, 8619

약사여래대불 조성불사 동참인내

- 대공덕주: [] 원
- 석등시주(개방): 삼백오십만원
- 공덕주: 오백만원
- 숭 대: 삼백만원
- 설판 제자: 일백만원
- 향 로: 삼백만원
- 동참시주자: 오십만원
- 다 기: 삼백만원

동참하실 분들의 입금계좌

- 예금주: 이연 무
- 농 협: 718-02-165594
- 대구은행: 056-08-352507
- ※ 입금후 확인전화 당부드립니다.

찾아오시는 길

▶ 버스노선(좌석버스) 403, 415, 449, 514 (남부정류장 경유)

대한불교 조계종 제8교구 직지사 수성구 포교원

황룡사 직지불교대학

전화 053)784-8620,8619

